

전남 156호 농업정보

주간 2017. 10. 23. ~ 29.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2017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전라남도

17. 10. 26. ~ 11. 5.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2017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소희

목 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3도, 최고기온: 18~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마늘·양파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 대파·건고추 가격 및 생산전망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우리나라산 고품질 신선딸기, 호주 식탁에도 선보인다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3

- ▶ 딸기 수정재배 배액 재활용 시스템의 생산비 절감 효과
- ▶ 벼 유기재배 수량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추가 시용 효과
- ▶ 남부지역 답리작 작부체계 도입 벤치마킹 우수사례

- ▶ 벼 (새 청 무)
- ▶ 자생식물 이용 기능성 물질 개발 산업화 연구 업무협약 체결
- ▶ 쌀용 약초 일당귀 GAP 고품질 안정 생산 재배법 개발
- ▶ 쌀 껍질 속 성분, 유방암 세포 증식 억제 효과
- ▶ 주성분 검사로 믿고 쓸 유기농업자재 가린다
- ▶ 고품질 콩 생산 지름길... 적기 수확과 균일한 건조
- ▶ 갈변 늦고 가공성 우수한 감자 개발로 소비 활성화 기대
- ▶ 건조방법별 고소애 영양소 분석
- ▶ 몸에 좋은 고들빼기, 차로 즐겨요
- ▶ 유전체로 한우 선발하는 기술, 국내서 첫 현장 적용

6 정책 동향 29

- ▶ 행정안전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 ▶ 쌀 시장격리 물량 본격 매입으로 쌀값 회복에 탄력 예상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1

- ▶ 여수시, 송시마을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 나주시, 호남권 최대 규모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 ▶ 순천시,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현장평가회 개최
- ▶ 광양시,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판촉활동에 나서
- ▶ 곡성군, 품질 좋은 퇴비 생산과 홍보에 총력
- ▶ 고흥군, 명품 하나봉 품질관리 나서
- ▶ 무안군, '18년산 양파·마늘 생산안정제 시행

- ▶ 미얀마, 떠오르는 새로운 시장 커피
- ▶ 페루, 루쿠마 차세대 슈퍼푸드 주목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10. 23.(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기술적 매도와 옥수수과 대두 선물의 약세에 영향을 받으며 전일 대비 1.5% 하락함
 - 옥수수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3% 하락하고, 금일의 하락으로 인해 옥수수 선물가격은 주간 최저치를 나타냄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에서의 수확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전일 대비 0.8% 하락하며 마감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 국제농업박람회, 미래 비전 제시할 볼거리 가득
- ▶ 작지만 강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행복한 만남
- ▶ 가을에 떠나는 음식관광 1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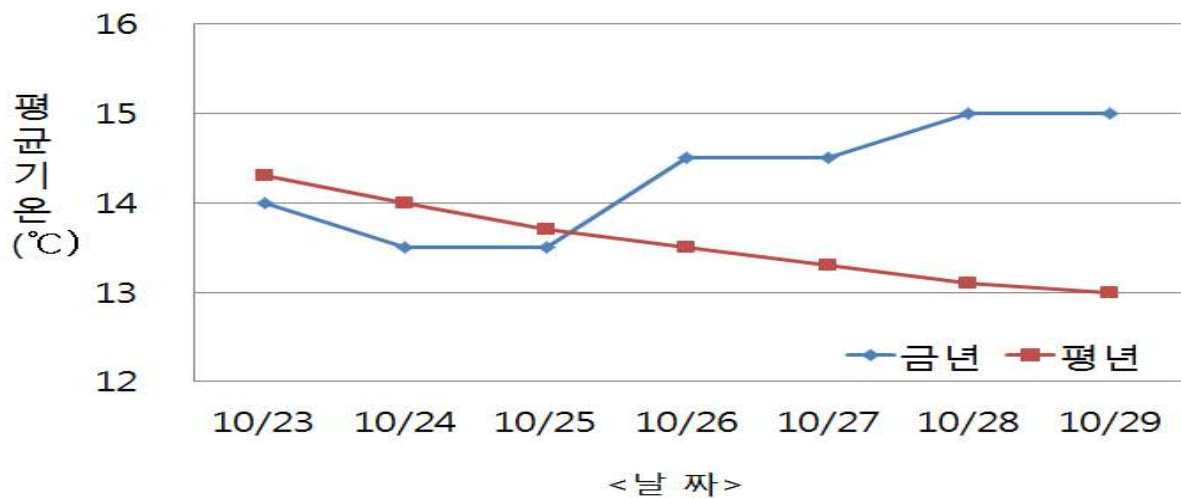
1

주간 기상 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10월 23일 ~ 10월 29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14.3℃ (평년대비 0.7℃ 높음)
- 최고기온 : 19.6℃ (평년대비 0.1℃ 낮음)
- 최저기온 : 9.0℃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1.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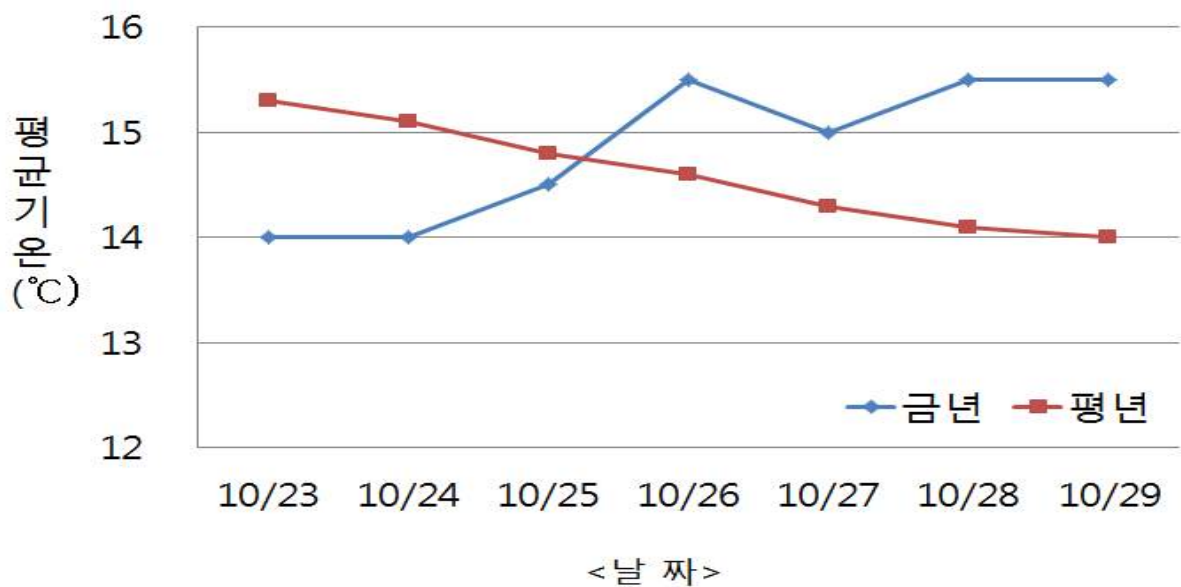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4.3	13.6	0.7	19.6	19.6	-0.1	9.0	8.6	0.4	1.4
10. 23.(월)	14.0	14.3	-0.3	18.0	20.3	-2.3	10.0	9.3	0.7	1.2
10. 24.(화)	13.5	14.0	-0.5	18.0	20.0	-2.0	9.0	9.0	0.0	1.1
10. 25.(수)	13.5	13.7	-0.2	19.0	19.9	-0.9	8.0	8.6	-0.6	1.0
10. 26.(목)	14.5	13.5	1.0	20.0	19.6	0.4	9.0	8.5	0.5	1.2
10. 27.(금)	14.5	13.3	1.2	20.0	19.4	0.6	9.0	8.3	0.7	1.5
10. 28.(토)	15.0	13.1	1.9	21.0	19.3	1.7	9.0	8.2	0.8	1.8
10. 29.(일)	15.0	13.0	2.0	21.0	19.0	2.0	9.0	8.0	1.0	2.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0월 23일 ~ 10월 29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14.9℃ (평년대비 1.2℃ 높음)
- 최고기온 : 19.9℃ (평년대비 0.2℃ 낮음)
- 최저기온 : 9.9℃ (평년대비 0.6℃ 낮음)
- 강 수 량 : 1.3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4.9	14.6	1.2	19.9	20.1	-0.2	9.9	10.4	-0.6	1.3
10. 23.(월)	14.0	15.3	5.0	18.0	20.8	-2.8	10.0	11.1	-1.1	1.2
10. 24.(화)	14.0	15.1	-1.1	18.0	20.5	-2.5	10.0	10.9	-0.9	1.1
10. 25.(수)	14.5	14.8	-0.3	20.0	20.3	-0.3	9.0	10.5	-1.5	0.9
10. 26.(목)	15.5	14.6	0.9	21.0	20.0	1.0	10.0	10.4	-0.4	1.1
10. 27.(금)	15.0	14.3	0.7	20.0	19.7	0.3	10.0	10.2	-0.2	1.5
10. 28.(토)	15.5	14.1	1.4	21.0	19.7	1.3	10.0	10.0	0.0	1.6
10. 29.(일)	15.5	14.0	1.5	21.0	19.4	1.6	10.0	9.8	0.2	1.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10월 23일 ~ 10월 29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15.5℃ (평년대비 0.2℃ 높음)
- 최고기온 : 19.7℃ (평년대비 0.5℃ 높음)
- 최저기온 : 11.3℃ (평년대비 0.7℃ 낮음)
- 강 수 량 : 1.2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5.5	15.3	0.2	19.7	19.2	0.5	11.3	11.9	-0.7	1.2
10. 23.(월)	15.0	15.8	-0.8	18.0	19.7	-1.7	12.0	12.5	-0.5	1.4
10. 24.(화)	15.0	15.6	-0.6	19.0	19.5	-0.5	11.0	12.3	-1.3	1.3
10. 25.(수)	15.0	15.4	-0.4	20.0	19.4	0.6	10.0	12.1	-2.1	0.8
10. 26.(목)	16.0	15.3	0.7	21.0	19.2	1.8	11.0	12.0	-1.0	0.9
10. 27.(금)	15.5	15.1	0.4	20.0	19.1	0.9	11.0	11.7	-0.7	1.1
10. 28.(토)	16.0	14.9	1.1	20.0	18.9	1.1	12.0	11.6	0.4	1.3
10. 29.(일)	16.0	14.7	1.3	20.0	18.7	1.3	12.0	11.4	0.6	1.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마늘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가격전망 : 10월 중·하순 가격 상승 대비 상승 전망

- 10월 중·하순 도매가격은 2017년산 생산량 및 입고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으나, 본격적인 저장마늘 출하 및 김장철을 대비한 수요 영향으로 상순(6,450원/kg)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 : 2018년산 재배의향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18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대서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산 대서종의 농가수취가격 상승 및 종구용 마늘 증가로 비주산지의 신규 재배 및 타 작목에서의 전환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양파 가격전망 및 재배의향

□ 가격전망 : 10월 중·하순 가격 상승 대비 하락 전망

- 10월 중·하순 가격은 출하량이 상순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순 대비 하락한 상품 kg당 1,2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의향 : 2018년산 재배의향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18년산 양파 재배의향은 전년보다 5% 증가,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전년 대비 4%, 중만생종은 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2017년산 조생종 포전거래가격과 중만생종 수확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 대파 가격 및 생산전망

□ 가격전망 : 10월 중·하순 가격 상순보다 낮을 전망

- 10월 중·하순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상순보다 낮으나, 평년과 비슷한 kg당 1,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겨울대파 재배면적 전년 대비 증가

- 12월부터 출하되는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542ha로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생육은 생육 초기 고온과 잦은 강우로 전년보다 나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고추 가격 및 생산전망

□ 가격전망 : 10월 중·하순 가격 전월 대비 약보합세 전망

- 10월 중·하순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추석 이후 가정용 건고추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월(12,570원)보다 다소 낮으나, 2017년산 생산량 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2017년산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2017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2016년산보다 12% 감소한 2만 8,329ha이다.
- 고추의 생육상황 조사결과, 2016년산 대비 좋음 5%, 비슷 21%, 나쁨 74%로 조사되어 생육이 전월 조사치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고추 생산량은 여름철 잦은 비로 탄저병 등 병해가 크게 확산되어 고추 재배를 조기에 종료하려는 농가가 늘어 전월 추정치보다 적은 전년 대비 2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산 고품질 신선딸기, 호주 식탁에도 선보인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한국산 신선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건이 최종 타결되어 2017년부터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2017년 9월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을 호주 검역당국이 공식 발표하였고, 호주에서 열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10. 17.~19.)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 그동안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 시장으로 국산 신선 딸기 수출을 위해 2008년 11월 호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였으며, 2014년부터 양국 간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마침내 양국이 검역요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함으로써 호주 수출 길이 열리게 되었다.
- 금년부터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딸기 재배농가는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수출농가(온실)와 선과장을 등록해야 하며, 호주 우려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이행 및 증명을 위해 재배지검역(2회) 및 실험실정밀검역(1회)을 실시하고, 수출선적 전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 처리를 하여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우수한 고품질 국산 신선 딸기가 호주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10. 2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23)	1주일전 (10/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7,800	34,800	34,500	29,000	39,913	↑ 30.3	↓ 5.3
	콩(백태)	35kg	173,800	172,600	172,600	152,000	164,333	↑ 14.3	↑ 5.8
	고구마(밤)	10kg	24,800	24,200	26,700	25,400	22,360	↓ 2.4	↑ 10.9
	감자(수미)	20kg	42,600	43,400	41,450	25,600	23,413	↑ 66.4	↑ 82.0
채소류	배추(고랭지)	1kg	560	740	1,610	840	591	↓ 33.3	↓ 5.2
	양배추	10kg	7,800	8,000	11,600	10,650	6,760	↓ 26.8	↑ 15.4
	오이(다다기계통)	10kg	28,333	17,667	22,333	16,667	17,644	↑ 70.0	↑ 60.6
	애호박	20개	15,800	12,600	21,550	18,750	15,850	↓ 15.7	↓ 0.3
	건고추(화건)	60kg	1,420,000	1,380,000	1,360,000	584,000	790,000	↑ 143.2	↑ 79.7
	풋고추	10kg	34,600	30,200	63,550	47,450	35,470	↓ 27.1	↓ 2.5
	마늘(깐마늘)	20kg	129,000	129,000	127,000	140,000	116,240	↓ 7.9	↑ 11.0
	양파	20kg	25,200	24,800	25,300	19,600	20,827	↑ 28.6	↑ 21.0
	당근	20kg	53,200	59,600	62,300	50,000	39,120	↑ 6.4	↑ 36.0
	대파	1kg	1,580	1,880	2,115	2,238	1,720	↓ 29.4	↓ 8.1
	파프리카	5kg	26,800	22,400	34,250	29,550	26,770	↓ 9.3	↑ 0.1
	토마토	10kg	26,400	27,000	38,850	36,900	30,567	↓ 28.5	↓ 13.6
	방울토마토	5kg	21,400	21,200	31,800	29,700	18,573	↓ 27.9	↑ 15.2
	사과(홍로)	10kg	37,400	37,800	37,750	-	33,933	-	↑ 10.2
과일류	배(신고)	15kg	36,400	39,200	43,450	34,850	35,217	↑ 4.4	↑ 3.4
	포도(캠벨얼리)	5kg	17,800	19,200	20,650	-	15,260	-	↑ 16.6
	단감	10kg	25,800	-	-	22,400	22,353	↑ 15.2	↑ 15.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0/23)	1주일전 (10/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04,000	510,000	518,600	522,800	534,267	↓ 3.6	↓ 5.7
	느타리버섯	2kg	12,000	13,000	14,550	13,250	11,990	↓ 9.4	↑ 0.1
	새송이버섯	2kg	8,000	8,000	8,800	9,500	8,267	↓ 15.8	↓ 3.2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479	8,498	8,149	7,998	7,019	↑ 6.0	↑ 20.8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24	2,198	2,330	1,982	1,767	↑ 2.1	↑ 14.5
	닭고기	1kg	5,027	4,970	4,962	6,299	5,975	↓ 20.2	↓ 15.9
	계란(특란)	30개	5,601	5,484	5,420	5,528	5,613	↑ 1.3	↓ 0.2
	우유	1리터	2,520	2,516	2,524	2,525	2,528	↓ 0.2	↓ 0.3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10. 23.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391 천원	5,453 천원	5,839 천원	↑ 2.6	↓ 4.2
	거세	6,752 "	6,545 "	6,602 "	↓ 1.2	↓ 2.0
송아지 (6~7월)	암	3,067 "	3,142 "	2,906 "	↑ 1.8	↑ 10.0
	수	3,843 "	3,709 "	3,643 "	↓ 0.6	↑ 1.2
육우(600Kg)		2,886 "	2,859 "	3,192 "	↑ 7.5	↓ 3.7
돼지(110kg)		422 "	323 "	345 "	↓ 8.4	↓ 14.2
육계(원/kg)		1,375 원	1,371 원	2,018 원	↑ 16.1	↓ 21.1
계란(원/특란10개)		1,235 "	1,168 "	1,229 "	↑ 0.9	↓ 4.1
생체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딸기 수경재배 배액 재활용 시스템의 생산비 절감 효과

영농기술·정보 내용

○ 딸기 수경재배 시스템 도입의 생산비 절감 효과

(단위 : 원, %)

구 분	관 행(토양) (A)	고설수경재배 비순환식 (B)	고설수경재배 순환식 (C)	증감율	
				(B/A)	(C/B)
수량(kg/10a)	3,100	4,650	4,645	50.0	△0.1
1kg당 생산비	5,130	4,980	4,946	△2.9	△0.7
10a당 생산비	15,901,893	23,155,152	22,976,625	45.6	△0.8
10a당 경영비	9,736,159	18,252,909	18,025,669	87.5	△1.2

○ 배액 재활용 시스템 도입의 경제적 효과

작목	배액 재활용 시스템 도입면적	기대효과(백만원)		
		경영비 절감	농가소득 향상	생산비 절감
딸기	1ha	2.3	1.9	1.8

기대 및 파급효과

○ 10a당 비료비 1,583천원 → 1,215천원으로 23.3% 절감

○ kg당 생산비 4,946원 → 4,946원 0.7% 감소

○ 10a 소득 14,994천원 → 15,188천원으로 1.3% 증가

○ 딸기재배 비용 절감 모델 확산을 위한 농가교육에 활용하고 농기계 보급이나 정책지원 홍보자료로 활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손장환, 조동호, 박신, 김덕현

■ 벼 유기재배 수량 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추가 시용 효과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도 유기농쌀 인증면적 확대 계획 : '15) 3,269 → '19) 6,000ha
- 유기농쌀 가격은 일반쌀에 비해 1.5~2배 정도 높아 부가가치 제고
- 풋거름작물 이용 장기간 유기재배 시 특정양분 함량 및 수량 불안정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양분공급 방법 개선을 통한 수량 증수('15~'16)
 - 533kg/10a(표준대비 18% 증)
 - (표준) 풋거름작물 1,500kg/10a → (개선) 풋거름작물 + 유기질비료 기비, 수비 2회 추가

재배조건	주당수수 (개)	수당립수 (개)	등숙비율 (%)	현미천립중 (g)	백미 (kg/10a)	단백질 (%)	완전미율 (%)
풋거름작물	14.4	87.0	93.0	21.2	452	5.2	95.1
풋거름+기3,추2	18.6	97.9	92.2	21.7	533	5.7	95.6
풋거름+기비3	17.6	90.6	92.8	21.2	485	5.3	94.6
풋거름+추비2	17.0	98.0	89.4	21.9	490	5.5	96.5
혼합유기질비료	19.1	90.2	91.2	21.3	496	5.5	94.8
무처리	12.7	93.3	94.3	20.4	357	5.2	95.6
관행(대조)	14.8	93.6	94.8	22.6	554	5.7	92.7

※ 유기질비료는 질소시비량 기준으로 기비 3kg, 수비 2kg/10a 수준



【유기표준재배 헤어리베치 환원】



【풋거름작물 환원 전 유기비료 살포】

□ 기대 및 파급효과

- 벼 유기쌀 생산 효과 : '15) 3,269 → '19) 6,000ha 적용 시 약 109억원 수익 제고
- 벼 유기재배 양분공급 개선 효과 : ha당 826,250원 농가 소득 증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안규남, 이인, 신서호, 민현경, 권오도

■ 남부지역 답리작 작부체계 도입 벤치마킹 우수사례

□ 배경 및 필요성

- 남부지역에서는 논 이용률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벼농사 후작으로 보리·밀과 같은 맥류와 마늘·양파·시금치·미나리와 같은 채소, 택사와 같은 약용작물이 재배되고 있음
- 답리작 작부체계 도입을 통해 성공한 농가의 사례와 요인을 발굴, 농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제공

□ 영농기술·정보 내용

- 남부지역 답리작 작부체계별 우수사례 농가의 소득 및 성공요인

작부 체계	소득(천원/10a)			파종(이식) 및 수확시기				성공요인
	계	벼	후작물	벼		후작물		
				이앙	수확	파종 (정식)	수확	
벼+ 양파	5,822	554	5,268	6중	10중	(11상~ 11중)	5하~ 6상	기능성 스테비아 양파로 차별화, 승용관리기 이용 이식, 농약 및 액비 살포 비용 절감, 밀식재배 (34,000주/10a)
벼+ 마늘	4,179	427	3,751	6하	10중	10하	6상	사질토양 재배 및 적기파종, 게르 마늄 살포로 마늘 상품성 향상
벼+ 미나리	2,931	352	2,579	5상	8중	9상	10중~ 6하	연중 미나리 생산으로 유휴 노동력 및 기반시설 활용도 제고, 지하 수를 이용한 청정 미나리 생산, 공동판매, 공동정산
벼+ 택사	2,647	505	2,142	4중	8중~ 8하	(8하)	11하~ 1하	고품질 쌀 농협 계통출하, 택사 지역산 약리성분 마케팅 활용
벼+ 시금치	2,343	442	1,901	5중	10상	10상~ 10하	11중~ 3하	농협 계통출하로 시장교섭력 확보, 4회 분산파종으로 출하량 조절
벼+ 귀리	835	454	381	6중	10중~ 10하	10중~ 11하	6상	200ha 대규모 계약생산 및 임가공 유통, 브랜드 개발 및 직거래 유통

□ 기대 및 파급효과

- 벼 재배농가의 후작물 선택의 길잡이 역할 및 소득증대 기여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조동호, 손장환, 박신, 김덕현

■ 벼 (새 청 무)

□ 배경 및 필요성

- 재배안정성과 미질 및 밥맛이 좋은 최고품질 벼 품종 요구도 증가
- 교배조합 : 청무/새누리

□ 품종 주요특성

- 중만생종, 밥맛 우수
- 내도복, 벼흰잎마름병 강($K_1 \sim K_3$), 수발아 강
- 용도 : 밥쌀용



【새청무】



【청무】

□ 재배상 유의점

-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 미질저하, 숙색불량 및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정 균형시비로 재배해야 함
- 도열병은 중도 저항성이고 벼멸구 등에 약하므로 적기 기본방제를 하여야 함
- 냉해 상습발생지 및 냉수용출답은 재배를 삼가야 함

□ 기대 및 파급효과

- 식량작물연구소 벼 시험포장에서 생산한(~4,000kg) 종자를 우선 분양
- 고품질 쌀 생산에 따른 우리 도 쌀 브랜드 이미지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신서호, 이인, 민현경

■ 자생식물 이용 기능성 물질 개발 산업화 연구 업무협약 체결

-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에 따른 기능성 물질 개발과 산업화 박차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내 자생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추출 등 연구개발을 통한 농가 신소득 창출과 6차 산업화를 위해 국내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인 (주)코스맥스바이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생물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생물다양성 협약(나고야의정)이 지난 8월 17일 국내 발효되어 산업 전반에 이용되는 모든 원료 식물의 가치가 높아졌다.
- 따라서 농업의 가치증대와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자생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물질을 찾고, 선별하는 연구와 이용확대를 위한 재배단지 조성 등 산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남농업기술원과 코스맥스바이오는 공동연구 개발사업 추진과 학술정보 교류 및 기술개발 자문 등 자생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관련 연구와 산업화의 기술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쌈용 약초 일당귀 GAP 고품질 안정 생산 재배법 개발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 특산 약초인 일당귀의 GAP 재배기술 지침서를 제작해서 고품질 생약재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2년근 생산 노지 부직포 피복재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일당귀는 전남도내 장성·화순 등 지역에서 12ha 재배되어 생산량이 11톤 정도로 쌈용나물과 국산 생약재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로 어린잎에 리구스틸리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향긋하고 씹는 맛이 좋은 당귀 잎을 쌈용 나물로 이용되고 있고 뿌리에 들어 있는 베르갑텐은 항균·항염증·보혈·진정·진통 등의 효능이 있어 가장 중요한 약재이다.
-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노지에 흑색 부직포로 피복재배를 하면 비닐 피복 재배하는 것에 비해 생육량이 증대되어 노지 재배에 비해 생엽은 18% 많았고, 말린 뿌리수량이 15%로 증수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일당귀 고품질 생산 시비방법은 300평당 요소 59kg, 중토비 50kg, 염화가리 68kg으로 밑거름을 40% 시용한 다음 웃거름을 30%씩 6월 하순과 8월 중순에 2회 나누어서 시용하면 경장, 엽장, 주당 엽수도 증대되어 2회 잎 수확한 생체수량이 373kg, 말린 뿌리수량이 329kg 가장 증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남농기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박사는 “일당귀 GAP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노지에 이랑높이를 15cm, 두둑너비를 90cm 정도로 흑색 부직포 피복재배하여 요소와 염화가리 비료를 밑거름으로 40% 시용하고 웃거름으로 30%씩 2회 나누어 시용하면 생체량과 뿌리 수량도 높아져 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GAP 표준재배법을 확립해서 쌈용나물 및 생약재 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쌀 껍질 속 성분, 유방암 세포 증식 억제 효과

- 감마오리자놀... 면역활성에도 도움 줘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내에서 재배되는 벼 16품종의 호분층에서 추출한 감마오리자놀이 유방암 세포의 전이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 감마오리자놀은 쌀의 껍질(호분층)에 많이 함유된 물질로, 갱년기 증상 완화와 위장 신경증 개선, 심혈관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연구는 차세대바이오그린21 식의약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건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한 것이다.
- 쌀(현미)에서 추출한 감마오리자놀을 유방암 세포와 대식세포에 각각 처리한 결과, 암세포 전이 및 증식 억제와 면역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이번 연구는 감마오리자놀이 유방암 세포가 발생하는 과정에 필요한 신호 경로 중 하나인 AKT (세포주기를 조절하는 단백질)를 감소시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 또한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식균작용(phagocytosis)이 약 75% 증가해 선천성 면역반응의 활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에 연구에 사용된 쌀 품종은 16종으로 이 중에서 흑미인 조생흑찰 호분층에 가장 많은 감마오리자놀(61.6mg/100g)이 함유돼 있었다.
- 미강 추출물을 포함하는 면역증강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출원(10-2016-0128123) 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 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주성분 검사로 믿고 쓸 유기농업자재 가린다

- 식물추출물 이용 유기농업자재 주성분 설정 및 분석법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유기농업자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추출물의 주성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법을 개발했다.
- 이번에 주성분이 설정된 식물추출물은 님·고삼·계피·마늘·데리스·회화나무·피마자·양명아주·정향·박하·잣나무 등 11개며, 이에 대해 29개 성분의 정량분석법이 개발됐다.
- 유기농업자재에는 계면활성제 등이 함유돼 있어 분석이 어렵다. 정량분석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과 용매를 이용해 전처리하고 고상추출법 등으로 정제한 후 정밀분석기기(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 등)를 이용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주성분 검사 성적서 발급 등 제품 및 원료 식물추출물의 품질 관리나 유통 중인 유기농업자재 중 주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불량제품을 관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또한, 농업인들은 사용하려는 유기농업자재의 주성분을 쉽게 알 수 있고 품질이 평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믿고 사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유기농업자재 품질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식물추출물의 주성분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고품질 콩 생산 지름길... 적기 수확과 균일한 건조

- 콩 수확 적기와 수확 후 관리 요령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본격적인 콩 수확기를 맞아 고품질 콩을 얻기 위한 수확 방법 및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 콩 수확 적기인 10월 하순을 넘기면 식물체가 비에 자주 노출돼 종자 발아율이 최소 1.4%에서 최대 57.1%까지 감소되며 병에 걸린 열매(이병립)도 증가한다.
- 특히 비를 많이 맞을 경우 콩의 당 함량이 낮아져 가공 시 품질도 떨어진다. 고품질 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기 수확이 매우 중요하지만 비가 계속 내릴 때는 수확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콩은 잎이 모두 떨어진 후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꼬투리의 80~90%가 황색이나 갈색으로 변할 때부터 수확하면 된다.
- 콩의 품질은 저장 기간 중 수분 함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탈곡 후 반드시 건조시키고 이때 순환식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순환식 건조기는 열풍 건조기에 비해 콩알이 건조기 안에서 순환하면서 균일하게 건조되기 때문에 손상율이 적어 고품질의 원료곡을 얻을 수 있다.
- 콩 건조 시 순환식 건조기의 적정 온도는 30℃이며, 콩의 적정 수분율인 13% 정도까지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은 13시간 이내고, 손상율은 5.7%이다.
- 콩을 급속히 건조하면 콩알의 미세구조가 거칠어지므로 적온에서 서서히 건조하도록 한다. 건조기가 없는 농가에서는 햇볕에 2~3일 정도 말려주거나 비닐하우스에서 바짝 말려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갈변 늦고 가공성 우수한 감자 개발로 소비 활성화 기대

- 갈변효소 활성이 낮아 가공·유통·조리·판매에 딱 좋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전통적인 육종 방법인 교배(交配)를 통해 껍질을 깎아 놓았을 때 표면색이 쉽게 갈변하지 않는 감자를 개발했다.
- 최근 1인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조리가 간편하도록 가공된 신선 편이 농산물과 간편 조리식의 수요가 늘고 있고, 감자전과 자용심이 같은 감자를 이용한 음식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 하지만 가공작업이나 유통 또는 조리 과정에서 감자의 빠른 갈변화는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 또한, 갈변은 색깔 변화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폐놀물질이 산화돼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조직이 무러지는 등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는 껍질을 깎거나 갈아놓았을 때 효소적 갈변이 늦게 일어나는 감자인 『신선(新鮮)』을 개발하고 지난 6월 특허출원했다.
- 이번에 개발된 신선 감자는 갈변효소들의 활성이 낮아 인공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신선한 색을 오랫동안 유지한다.
- 미리 깎거나 갈아 놓아도 갈변이 늦게 일어나 가공이나 조리 작업이 편하고, 갈변 억제를 위한 가열과 인공첨가제 등의 추가 공정을 줄일 수 있어 업체에는 비용 절감,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먹거리 제공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제공한다.

-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물론 신선 편이 가공업체나 전문음식점, 지역 농산물 축제장 등에서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선 감자는 재배 및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미』 감자와 비교해 수량과 전분 함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좋으며, 효율적인 심기차레(작부체계)와 높은 조수익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신선 감자는 상서수량이 수미에 비해 10a당 14%(402kg) 더 많고 건물률은 3.9% 높으며, 전분 함량도 3.7% 더 많아 감자가루(전분 포함), 감자칩·프렌치프라이·플레이크등 가공용으로 적당하며 맛도 우수하다.
- 또한, 2모작 재배에 적합한 조생종으로 무름병에 강하고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 평년 기준으로 농가 조수익은 10a당 35만 5천여원 정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신선 감자는 무병 씨감자 증식과 함께 산업체 상품성 시험 단계에 있으며, 수출용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현지 적응성 시험을 진행 중이다.
- 신선 감자는 2018년 특허등록 완료 후 국립식량과학원이나 농업 실용화재단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 및 가공업체에 소규모 품종 보급이 가능하다.
- 추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가공업체와 계약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씨감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건조방법별 고소애 영양소 분석

- 4가지 건조방법 모두 적합... 용도 맞게 선택하면 OK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유충)를 건조방법별로 3대 영양소(탄수화물·단백질, 지방), 무기질·아미노산·지방산 함량 등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연구에서 활용된 건조방법과 조건은 △동결건조=고소애 5kg을 -70℃에서 48시간 처리 △열풍건조=고소애 15kg을 70℃에서 14시간 처리 △마이크로파건조=고소애 200g씩 10분 처리 △중적외선건조=고소애 1kg을 18~19A에서 6분 처리 등 4가지다.
- 연구 결과, 건조 후 수분함유량은 동결건조>중적외선건조>열풍건조>마이크로파건조 순으로 높았지만, 건조 후에 수분함유량은 2~3%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 3대 영양소의 경우, 탄수화물은 동결건조>열풍건조=마이크로파건조>중적외선건조 순이었다. 단백질은 중적외선건조=마이크로파건조>동결건조=열풍건조 순으로 높았다. 지방은 열풍건조>중적외선건조>동결건조=마이크로파건조 순이었다.
- 무기질 함량은 칼슘·인·마그네슘·아연·구리는 마이크로파건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칼륨은 열풍건조, 나트륨은 중적외선건조에서 높았다.

-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마이크로파건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건조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었다.
- 건조방법별 유해미생물 검사 결과, 유해미생물인 E. coli 0157:H7와 Salmonella spp.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 외관·풍미·식감 등의 관능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파건조에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열풍건조에서 기호도가 낮은 편이었다.
- 분석 결과 4가지 건조방법 모두 고소에 건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용도에 맞는 건조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김미애 연구사는 “건조방법은 고소에의 생산량 조절, 장기 보관, 가공원료 활용 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며, “이번에 비교한 4가지 방법 모두 고소에 건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쓰임에 맞게 건조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열풍건조】

【동결건조】

【마이크로파건조】

【중적외선건조】

건조법 차이에 따른 고소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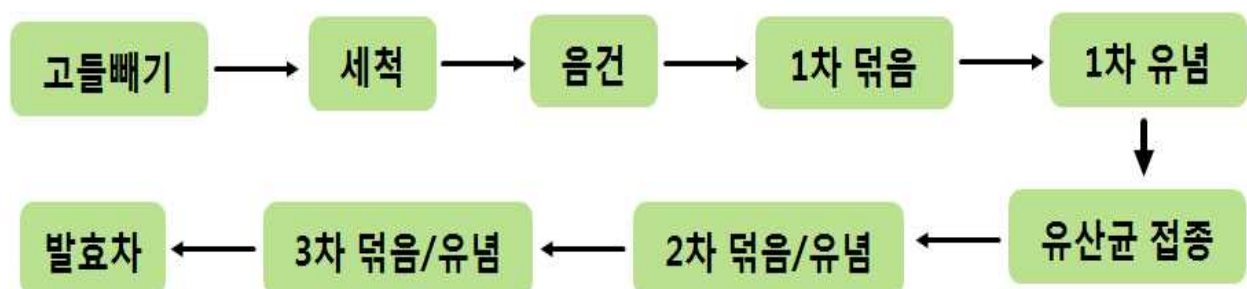
■ 몸에 좋은 고들빼기, 차로 즐겨요

- 유산균 활용 고들빼기 발효차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주로 김치로 먹던 고들빼기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항산화 성분이 7배 증가된 고들빼기 발효차를 개발했다.
- 고들빼기는 예부터 봄에는 나물, 가을에는 김치로 만들어 먹었으며, 소화 및 해열 진통제로 사용돼 왔다. 고들빼기에 함유된 퀘세틴(Quercetin)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로 세포 손상을 막아 고혈압 예방 및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
- 이번에 개발된 고들빼기 발효차는 고들빼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그늘진 곳에 잘 말렸다가 1차로 덖고 잘 비빈 후 유산균을 고들빼기의 2% 비율로 넣어 2차, 3차 덖고 비비는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 이번 연구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plantarum*),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L.brevis*), 루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eu.Mesenteroides*) 등 유산균 3종이 이용됐다.
- 이렇게 제작된 차는 기능성분인 퀘세틴이 20.61mg/100g 함유돼 있어 발효되지 않은 고들빼기의 퀘세틴 함유량 2.77mg/100g 보다 최대 7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쥐의 대식세포주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염증 억제와 관련된 사이토카인(Cytokine) 생성을 줄여 면역 기능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으며, 항당뇨 활성은 23% 증가됐다.

- 또한 고들빼기의 쓴맛 관련 아미노산인 발린(Valine)이 32% 감소했으며, 단맛 관련 아미노산인 글루탐산(Glutamic acid) 및 글리신(Glycine)은 생성되어 고들빼기 특유의 쓴맛을 감소시켰다.
- 특히 유산균 발효를 통해 유기산인 젖산(Lactic acid), 호박산(Succinic acid), 사과산(Malic acid) 등이 증가돼 발효차 특유의 상쾌한 맛과 향이 나타났다.
- 관능평가 결과, 일반 고들빼기 차는 특유의 쓴맛이 남아 있는 반면 발효차는 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증가했으며, 유산균 발효에 의한 상쾌한 맛과 향으로 전체적인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된 고들빼기 발효차에 대해 특허 등록(특허10-1611420)을 마쳤으며, 앞으로 고들빼기를 식·의약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고들빼기 발효차 만드는 방법

■ 유전체로 한우 선발하는 기술, 국내서 첫 현장 적용

- 도체중 17%, 등심단면적 16% 등 유전능력 정확도 향상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한우의 개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송아지 600마리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고, 유전능력을 예측해 유전체 유전능력이 우수한 송아지 455마리를 선발했다.
- 한우 보증씨수소는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1차 선발(당대 검정)하고, 이어 자손의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후대 검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 이 중 당대 검정을 앞둔 송아지의 경우, 그간에는 외모 심사와 친자 감정으로 탈락 소를 결정한 뒤 부모 능력만을 활용해 최종 선발해 왔다.
- 연구진은 2014년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보유한 당대·후대 검정 소와 씨수소의 유전체 자료를 분석해 한우 4,500여 마리로 참조집단을 꾸렸다.
- 이를 활용해 당대 검정을 앞둔 송아지의 유전능력을 추정하고 추정한 유전능력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혈통)보다 12개월령 체중은 12%, 도체중 17%, 등심단면적 16%, 등지방두께·근내지방도는 9%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대 검정 소 선발뿐 아니라, 당대 검정 후 후보씨수소 선발이나 후대 검정 후 보증씨수소를 선발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국가단위 한우개량체계에서 유전체선발 기술을 적용한다면 한우의 유전적 개량량을 증가시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당대 검정 소를 선발하면서 유전체선발 현장적용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내년부터는 한우 개량체계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행정안전부,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12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10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밝혔다.
-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8%)은 평년(72%)의 94% 수준으로 가뭄 심함단계는 아니며, 현재는 울산·경북·경남지역 3개 시군이 주의단계로 12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운문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대구·충남·전남·경북지역 17개 시군은 심함단계이며, 주암댐 등을 수원으로 하는 광주·전남·경북·경남지역 13개 시군은 주의단계이다.
- 11월 강수량은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남부지방의 가뭄 해갈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나, 대구·전남·경북·경남 지역 12개 시군은 심함단계에 도달하거나 유지되고, 광주·충남·전남 16개 시군은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남부 지방 중심으로 내년도 용수공급을 위한 용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전남·경남 등 저수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내년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양수저류를 실시하고, 운문댐 등 용수댐에 대해서도 저수량 관리 등 장기 가뭄에 대비하여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쌀 시장격리 물량 본격 매입으로 쌀값 회복에 탄력 예상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7년산 쌀의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에 대해 시도별 물량을 배정하고, 매입 지침을 확정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시장격리곡의 물량배정 기준, 매입방법, 시기, 매입가격, 방출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량배정 기준) 올해는 시장격리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17년 공공비축미 지자체 배정 비율(50%) 외에 재배면적 비율(50%)도 함께 반영하였다.
- (매입방법·시기) 시장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에 최대한 빨리 농가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 (매입가격)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우선지급금 또한 매입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방 출) 시장격리곡은 쌀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곡이 농가단위까지 배정되면 농가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어 저가투매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근 15만원 이상인 쌀값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송시마을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농업회사법인 여수 송시마을이 10월 18일 『2017년 6차 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우수상을 수상한 여수 송시마을은 지역 친환경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조·가공하고 파충류전시관 등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전 가족이 귀농해 돌산읍의 한 폐교를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다.
- 특히 지역의 우수 농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한 판매로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6차 산업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 윤연주 송시마을 대표는 “농촌 주민들과 더욱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 농산물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 나주시, 호남권 최대 규모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장, 집배송장 등 효율적 유통 시스템 갖춰 -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0월 17일 산포면에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개장식을 개최했다.
- 정부의 제 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건립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지하 1층(29,987㎡), 지상 2층(13,644㎡) 규모로 총 사업비 278억원이 투입된 초대형 농산물 물류센터다.
- 센터 내부에는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집배송장, 선별포장장, 전처리실 등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의 물류비 절감과 유통망 확충을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센터 운영은 지난 5월 16일 나주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던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김원석)에서 담당하게 된다.
-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육성과 소비시장 개척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340억원 매출을 목표로 이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 사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나주시

■ 순천시,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현장평가회 개최

- 순천시는 10월 19일 해룡면 신대리에서 지역 농업인 150여명을 초청하여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현장평가회를 실시하였다.
- 이번 현장평가회는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 결과를 현장에서 실증하고 주요 투입기술을 소개함으로써 2018년 사업에 지역농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벼 무논점과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은 논에 직접 볍씨를 뿌려 육묘 노력비를 절감하고 파종과 동시에 한번만 시비함으로써 기존 이앙재배 대비 노동시간은 23% 줄고 이에 따른 생산비용은 1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특히 기존 직파재배는 볍씨 입모율이 떨어지고 잡초방제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무논점과 기술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벼 직파기술이다.
- 볍씨 파종 이전 땅을 고르게 골라 논 전체 물빠짐을 고르게 하여 입모율 및 잡초방제 효과를 높이는 것이 벼 무논점과 재배기술의 핵심이다.
- 순천시는 이밖에도 생산비 절감 기술을 비롯한 건강 기능성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농업미생물 적용 작목을 확대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판촉활동에 나서

- 제12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대표 농산물 선보여 -

- 광양시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FOOD WEEK 2017(제12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여해 우수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나선다.
- 이날 행사에는 협성농산(대표 조상현)의 매실청과 매실장아찌·매실 농축액 등 다양한 매실 가공제품을 선보인다.
- 또 천상서병길농원(대표 서병길)에서 대봉곶감을, 부저농원(대표 이평재)에서 홍매실청과 백운산 참돌배즙·말린돌배 등을 선보인다.
- 정옥자 마케팅전략팀장은 “이번 행사에서 광양시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는 등 판촉활동의 전도사로 자부심을 갖고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대도시 소비자를 겨냥한 지속적인 홍보 판촉 행사를 추진해 광양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품질 좋은 퇴비 생산과 홍보에 총력

- 부산물자원화센터 내년 공급 1등급이상 우수퇴비 본격 생산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2018년도 유기질비료(퇴비) 지원사업을 위해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본격적인 퇴비 생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군 퇴비 신청량 49만포는 공급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0만포 이상 공급을 목표로 군 퇴비 홍보와 생산 포장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군은 더 좋은 퇴비 생산을 위해 정기적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비료관리법에 의한 특등급 수준의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동안 염려해 왔던 군 퇴비가 품질 면에서도 타 업체 퇴비에 절대 뒤지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 퇴비를 적극 사용을 권장하고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군 퇴비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 또한 금년에는 퇴비 전문가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여 퇴비 생산 및 품질 관리, 홍보 마케팅 등 업무를 전담하여 군민에게 품질 좋은 퇴비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명품 하나봉 품질관리 나서

- 고흥군은 명품 『하나봉』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 현장기술지원에 나선다.
- 고흥지역 하나봉은 재배면적 11ha(40 농가)로 연간 약 300여톤이 생산되고,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높은 당도와 새콤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당도 13°Brix이상, 산도 1.0% 이하를 하나봉 출하 기준으로 삼고, 수확 전 당·산도 측정을 통해 물 관리 등 후기 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최고품질의 하나봉 생산은 토양과 나무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10월까지 10~15일 간격으로 10a당 5~10톤 관수하여 산도를 1.3% 이하로 저하시키고, 이후 수확기까지 관수량을 점차 줄여 당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맛을 볼 수 있다.

* 출처 : 고흥군



■ 무안군, '18년산 양파·마늘 생산안정제 시행

- 시중 평년가격 80% 보장, 다음 달 초까지 신청·접수 -
- 무안군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역 양파·마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안정제(가격안정제) 신청을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순까지 관내 농협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농협이 신청 받고 있는 생산안정제는 수급안정사업비를 운영해 참여한 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정부(30%), 지자체(30%), 농협(20%), 농업인(20%)이 수급안정사업비를 분담하는 대신,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 우선 계약체결 시 계약금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50% 범위 내에서 이자 부담 없이 계약금을 지원해주고, 그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 최근 5년간 도매 시장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준다.
- 또한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가격도 기존 최저보장가격보다 약 2~2.5배 더 지원한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출하조절에 참여한 물량에 대해 운송비와 출하작업비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출처 : 무안군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20~50% 범위 내에서 이자부담없이 계약금 지원



· 시장가격 하락 시 가격차액보전으로 소득안정 최근 5년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 보장
· 과잉생산 등 가격하락 예상 시 사전적 면적 조절 기존 최저보장가격(하한가격)보다 약 2~2.5배 보장



· 가격급등 시 출하조절 참여 출하된 물량에 대해 운송비, 출하작업비 등 지원





■ 미얀마, 떠오르는 새로운 시장 커피

- 2015년 오스트리아 커피 체인 글로리아진스가 미얀마 플라자와 정선시티 백화점에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미국 브랜드 Coffe Bean은 양곤 공항에 첫 매장을 오픈, 또 다른 미국 브랜드 커피 아마존은 정선시티에 첫 매장 오픈되었으며, 많은 중소 브랜드 커피매장이나 개인 커피매장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인구의 68.5%가 15~64세로 구성된 미얀마는 서구 문화에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있으며 커피문화도 점차 인스턴트 믹스커피에서 아메리카노 및 콜드브루와 같이 다양한 문화를 새롭게 배워가고 있다.
- 미얀마 로컬 커피생산 업체 Genius는 2012년에 설립되었지만 3년 만에 내수 원두커피 시장을 점점 장악해가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수출을 시작함고, 많은 커피전문점들이 이제는 더 나은 품질과 매력적인 포장으로 시장을 노리고 있다.
- 시사점으로 신 시장 개척 국가인 미얀마 내의 서구문화를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Starbucks와 같은 고급 커피브랜드도 미얀마 진출을 계획 중에 있고, 대다수의 미얀마 국민들은 아직까지 커피믹스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한국의 품질 좋은 커피믹스 및 RTD(ready to drink)커피 제품의 미얀마 진출 필요성이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페루, 루쿠마 차세대 슈퍼푸드로 주목

- 남미지역에서 잉카의 황금으로 불리는 과일 『루쿠마』(Lucuma)가 미국에서 차세대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 페루가 원산지인 루쿠마는 칠레·브라질에서도 자라지만 페루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메이플시럽 또는 카라멜 맛과 가까운 단맛이 가득한 루쿠마는 비교적 건강한 맛에 가까웠던 지금까지의 슈퍼푸드와는 조금 다른 단맛에 칼로리는 낮아 당뇨병환자를 위한 과일 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 또한 항산화효과 외에도 아연·철·베타카로틴·칼륨과 칼슘 그리고 주로 육류에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인 비타민 B3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활용법은 다양한데, 기존 과일처럼 잘 익혀서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며 아사이베리처럼 파우더로도 섭취 가능하다. 달콤한 맛으로 페루에서는 인기 아이스크림 재료로 꼽힌다.



- Fona International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루쿠마를 활용해 출시된 신제품 수는 총 62개로 이 중 냉동식품이 21%로 가장 많았고, 초콜릿이 16%, 비스킷과 쿠키가 14% 케이크류가 11%, 떠먹는 요거트가 7%로 각각 뒤를 이었다.
- 생과일 유통이 어려운 미국에서는 분말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데 케이크나 쿠키를 만들 때 설탕 대신으로 활용하거나 스무디나 요거트 등에 타서 먹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또한 분말을 활용해 만든 식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Fona International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루쿠마를 활용해 출시된 신제품은 쿠키와 초콜릿·프로틴 스무디 믹서 총 3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10. 23. 시카고 선물거래소]

□ 활발한 수확으로 인해 주간 최저치를 보인 옥수수·대두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상황(▼1.5%)

- 밀 선물가격은 기술적 매도와 옥수수·대두 선물의 약세에 영향을 받으며 전일 대비 1.5% 하락하였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1.3%)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3% 하락하였고, 금일의 하락으로 인해 옥수수 선물가격은 주간 최저치를 나타냈다. 수확은 미 중서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건조한 기후는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

○ 대두 선물시장 상황(▼0.8%)

-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에서의 수확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전일 대비 0.8% 하락하며 마감하였다. 미 중서부의 핵심 작물 벨트에서 농작업에 도움이 되는 날씨가 뒤따르면서, 미국의 수확에 도움을 주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국제농업박람회, 미래 비전 제시할 볼거리 가득

-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볼거리가 가득한 2017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26일 농업기술원에서 개막,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예전과 달리 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시관별 다양한 콘셉트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사한다. 특히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음식문화도 보여준다.
- 관람객 45만명을 목표로 △농풍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판매마당 등 5개 마당 14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21개 시군 우수 농·특산물 판매장터, 드론, 전기차 등 미래농업을 선도한 최첨단 농기계 전시관도 다채롭고 흥미롭게 연출한다.
- 또한 국내 우수 농산물, 농식품 등 1천여억원의 수출 구매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내외 31개 국 394개 기관·기업·바이어 유치로 이미 확정했다. △토마토 ICT 융복합기술 응용 및 생산량 예측 △한이스라엘 스마트 AGRITECH △세계곤충산업현황 등 농업의 당면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현장 밀착형 학술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이외에도 국제농업박람회와 연계한 『국제곤충산업심포지엄』, 『2017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전』, 『2017 대한민국 압화대전』, 『제38회 대한민국 난 대전』 등 특별전시와 제15회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 및 전시회, 농촌문화 트리아트 포토월 등 기획전시가 진행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작지만 강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행복한 만남

- 10월 25일부터 코엑스에서 2017 강소농대전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 전시관 A홀에서 『2017 강소농 대전』을 연다.
- 『함께하는 강소농! 신나는 자유포임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강소농 대전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이 전시·판매되며 체험프로그램, 강소농 재능기부 콘서트, 소비자 참여 농산물 경매 등 다양한 홍보 행사가 마련된다.
- 강소농(強小農)은 영농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 경영체를 말한다.
- 농촌진흥청은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농가 경영진단·맞춤형교육·경영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7만 4천명의 강소농이 육성 됐으며, 강소농 스스로 영농기술을 학습하고 공유하기 위해 결성한 자유포임체는 약 477개소에 달한다.
-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이전보다 역량과 소득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였고 이는 경영개선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 농촌진흥청 김상남 농촌지원국장은 “2017 강소농대전이 전국 7만 4천명에 달하는 강소농의 자부심을 북돋우고,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 그리고 강소농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가을에 떠나는 음식관광 10선

- 한우 · 인삼 · 메밀 · 산채 등 제철 식재료를 찾아가는 미식여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식재단은 가을 여행주간(10. 21.~ 11. 5.)을 맞이하여, 지역별 제철 식재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미식 여행코스 10선을 선정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음식관광 10선은 그동안 K-Food 로드사업과 이달의 음식관광테마 선정 등을 통해 소개된 여행지를 바탕으로 주제가 되는 식재료의 출하시기와 가을여행 이미지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 한우(예산), 인삼(금산), 산채(전주), 유자(고흥), 전통장(담양), 콩(양주)등 식재료와 올림픽푸드(메밀·한우, 평창), 종가음식(영양), 한식문화관(서울), 전통시장(부산) 등의 주제별 코스로 구성되었다.
 - 음식관광 10선에 선정된 코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대표 식재료를 맛 볼 수 있는 대표 콘텐츠를 중심으로 주변의 유명 여행지와 농촌체험마을, 농가 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등의 지역 자원들이 연계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은 음식관광 테마 10선 선정과 함께, 그동안 해당지역을 배경으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을 통해 제작·공개된 팸투어 영상을 활용하여 『가을에 떠나는 음식관광 10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56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